

1970年代 以後 長期不況과 資本의 對應⁽¹⁾

金 秀 行 · 張 時 福 · 鄭 燦

황금기를 누리던 세계경제는 1970년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장기불황에 빠졌다. 1970년대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장기불황은 계급관계의 위기를 반영하는 생산성의 위기와 자본구성의 고도화, 그리고 과잉설비에 따른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불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황금기의 노동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계급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이윤율 하락은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원료, 노동력, 시장을 둘러싼 자본들 사이의 국내외적 경쟁을 격화시켰다. 경쟁에 직면한 자본은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세계경제의 불균등을 심화하고 금융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1. 머리 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듯, 오늘날 資本 世界化(globalization)의 거대한 뿌리는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에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의 長期不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역사상 유례 없는 大好況을 누렸다. 연평균 GDP 成長率은 1820-1870년 1.0%, 1870-1913년 2.1%, 1913-1950년 1.9%이었지만 1950-1973년 4.9%로 크게 증가했다 [Maddison (1995)]. 자본주의의 '黃金期(Golden Age)'라 부르는 이 시기는 인류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냈고 생산성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증가로 인해 대량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 자본주의 번영의 시기로 기록되었다.

황금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이윤률이 보장되던 시기였다. 總需要 管理 중심의 거시경제 구조와 계급간 협조 체제가 맞물린 生産關係는 높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나아가 안정적인 수요까지 동시에 보장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資本蓄積이 가능해졌으며 높은 생산성 상승률, 임금상승률, 자본축적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高成長이 실제로 지속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복지국가의 성립, 노동조합의 강화, 수요관리 정책이 확립되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원재료 등이 값싸고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비용 측면에서 자본의 이윤을 제고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해주었다.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두뇌한국 21사업 대학교육개혁지원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表 1〉 世界經濟의 下落 (單位: 年平均變化率 %)

		1960-1973년	1973-1979년	1979-1990년	1990-1996년
GDP	미국	4.0	2.6	2.4	2.1
	일본	9.2	3.5	3.9	1.6
	독일	4.3	2.4	2.1	1.7
	G7	4.8	2.8	2.55	1.6
생산성	미국 (GDP/노동시간)	2.6	1.0	1.0	0.7
	일본 (GDP/노동자수)	8.2	3.0	3.0	1.0
	독일 (GDP/노동자수)	4.0	2.7	1.5	1.85
실질임금	미국	2.8	0.3	0.4	0.3
	일본	7.7	2.8	1.6	0.6
	독일	5.4	2.5	1.0	0.9
실업률	미국	4.8	6.7	7.0	6.3
	일본	1.3	1.9	2.5	2.6
	독일	0.8	3.4	6.8	7.6
	G7	3.1	4.9	6.8	6.9

資料: Brenner(1998).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利潤率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1973년 10월의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石油危機'와 1974년 여름에 발생한 세계적 공황으로 전후의 황금기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종말을 고했다.

〈表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은 1970년대 초 이후부터 저성장, 저생산성, 저임금, 고실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Brenner(199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蓄積體制의 전형적인 양상인 높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성장률, 이에 기반하는 원활한 자본축적에 문제가 발생했다. 높은 생산성과 임금상승을 교환하는 식으로 이뤄졌던 階級妥協은 붕괴하기 시작했고, 新自由主義 政權들은 디플레이션 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다. 또한 이윤율의 전반적인 하락은 경쟁을 격화시켰는데 이는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많은 논자들은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불황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利潤壓迫論은 호황기에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거나 노동조합 세력의 증대로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주장하였다(Marglin(1990)). 최근에 브레너(R. Brenner)는 세계경제 장기침체의 원인인 이윤율의 저하를 미국, 유럽, 일본 간의 세계적인 경쟁을 통해 설명하였고 이를 둘러싼 열띤 논쟁이 전개되었다.⁽²⁾

이러한 논의들은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윤율은 자본축적의 중요한 동학이다.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본의 축적구조를 변화시키는 동력이며 자본의 새로운 蓄積戰略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 불황을 가져온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후 이윤율 하락에 대해 자본이 어떠한 대응을 통해 축적전략을 바꾸었는지를 살펴본다.

2. 1970年代 以後 長期不況의 原因

많은 논자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의 원인에 대해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설명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이윤율 하락의 원인이었다. 지금까지 이윤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이 글은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계급관계를 반영하는 생산성의 위기와 자본구성의 고도화를 통해 설명한다.

2.1. 生産性 危機⁽³⁾

196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황금기의 善循環 중의 하나인 높은 생산성-높은 임금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생산성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表 2>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60년대 후반 4.2%에서 1973-1979년 1.3%로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영국은 같은 기간 5.1%에서 1.2%로 하락하였다. 또한 모든 선진국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임금뚝의 증가도 발견된다.⁽⁴⁾

우리는 이러한 생산성의 위기를 剩餘價値 生産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剩餘價値

-
- (2) 브레너에 따르면, 이윤율 하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과 독일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포기하면서 투자를 다른 산업으로 적절히 이동시키기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해 일본과 독일에 대항했다. 결국 미국과 독일, 일본 간의 경쟁은 과잉생산과 과잉설비를 재생산하였고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지고 말았다. 브레너에 대한 비판은 Fine *et al.* (1999), Duménil and Lévy (1999a, 2001d), 정성진 (1999)을 참조하라.
- (3) 맑스주의 경제학은 生産의 勞動만이 價値를 생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맑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생산성 위기란 다른 아닌 노동생산성 위기이다. 노동생산성 위기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치 생산의 위기, 따라서 價値增殖을 해야만 하는 자본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선진국 全産業의 경우 1960-1969년 연평균 임금뚝 증가율이 -0.1%였던 것이 1969-1973년 0.8%로 상승한다. 미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각각 -0.5%에서 0.8%로 상승했다. 또 유럽의 경우는 1960-1966년 0.3%에 머물렀던 임금뚝 상승률이 1966-1973년 1.0%로 나타났다 (Armstrong *et al.* (1991)).

〈表 2〉生産성과 産出/資本 比率의 變化, 製造業, 1969-1985 (單位: %)

		1960년대 후반	1973-1979년	1979-1985년
미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4.2	1.3	3.4
	산출/자본비율	1.3	-1.6	-0.7
일본	시간당 노동생산성	9.5	5.6	6.2
	산출/자본비율	-2.4	-0.8	2.8
독일	시간당 노동생산성	5.0	4.3	3.1
	산출/자본비율	-2.1	-0.4	-0.3
프랑스	시간당 노동생산성	6.1	4.9	3.5
	산출/자본비율	0.0	-1.1	-3.8
영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5.1	1.2	3.9
	산출/자본비율	-0.7	-3.1	-1.7
이탈리아	시간당 노동생산성	8.6	3.3	3.3
	산출/자본비율	0.3	0.0	-1.0

資料: Armstrong *et al.*(1991).

〈表 3〉 Moseley와 Shaikh의 剩餘價値率 推計結果

(單位: 剩餘價値/可變資本 比率)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Moseley	1.72	1.72	1.69	1.62	1.61	1.71	1.67	1.59	1.55	1.71
Shaikh & Tonak	2.08	2.10	2.08	2.01	2.03	2.08	1.99	1.94	1.95	2.11

資料: Moseley(1991), Shaikh and Tonak(1994).

率에 관한 推計 結果들⁽⁵⁾을 보면 잉여가치율은 대체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과 같은 장기적인 침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1960년대 말부터 잉여가치율의 증가추세가 정체가 시작하여 이 정체가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表 3〉을 참조).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생산성 위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생산성 위기, 즉 勞動生産性 危機를 剩餘價値 生産의 危機로 해석

(5) 잉여가치율을 추정할 때, 모든 산업부문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째, 생산적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하므로 가변자본은 생산적 노동에 지급된 임금만을 포함한다. 둘째, 비생산적 노동에 지급되는 임금은 비생산적 노동을 고용한 자본에게는 가변자본이지만 그 원천은 생산적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비생산적 노동에 지급된 임금은 생산적 노동으로부터 이전된 것이다.

할 때, 1960년대 후반의 계급투쟁에서 자본이 노동에게 밀리고 있었다는 것을 <表 3>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Weisskopf(1979), Glyn *et al.*(1990) 등 이윤압박론자들은 雇傭率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자의 協商力이 높아지고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몫이 상승하여 이윤몫의 하락과 이윤율의 하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호황기에 산업생산이 원활하게 증가하고 또한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不況期에는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가 임금몫의 감소 및 이윤몫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⁶⁾

하지만 전후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에서는 고용이 증가해서 임금몫이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이윤율 하락과 위기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포드주의 蓄積體制라고 불리는 이 축적체제에서는 자본 나아가 국가가 勞働者階級에 대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노동자계급은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자본에게 양보하고,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이었다.⁽⁷⁾ 따라서 이 체제 안에서 고용율이 높아진 것에 따른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가 비록 임금몫을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대신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윤압박론처럼 분배요소, 즉 임금몫과 이윤몫만으로 이윤율 하락과 경제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⁸⁾

이에 관해 1960년대 중후반의 社會的 狀況을 검토해보면 유용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계급투쟁의 양상은 단지 賃金協商에 그치지 않았다. 非人間的 勞働過程에 대한 광범위한 抵抗, 各種 社會運動의 성장이 있었던 시기가 1960년대 후반이다.⁽⁹⁾ 즉, 노동대중의 광범위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生産現場에서

(6) 이윤압박론의 두 가지 경로는 $\pi = 1 - w^R/P_L$ (π : 이윤몫, P_L : 노동생산성, w^R : 실질임금 성장률)이라는 간단한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노동생산성이 불변(P_L 고정)이지만 실질임금의 성장률은 증가($w^R \uparrow$)하여 이윤몫이 하락($\pi \downarrow$)할 수 있다. 노동공급의 부족으로 고임금이라도 노동자를 얻기 위해 자본가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증가한다. 둘째, 실질임금 성장률이 불변(w^R 고정)이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하락($P_L \downarrow$)하여 이윤율이 하락($\pi \downarrow$)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세력이 증가하면 하락한다(Duménil and Lévy(1999b)).

(7)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위의 예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實利的 勞組主義'였다. 이에 비해 노동자의 참여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생산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는 노동자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8) $r = \Pi/K = \Pi/Y \cdot Y/L \cdot L/K$ (r : 이윤율, Π : 이윤량, Y : 생산, L : 노동량, K : 자본스톡). 이와 같이 이윤몫과 노동생산성, 노동/자본스톡 비율의 곱으로서 이윤율을 생각해보자.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임금몫의 상승이 첫 번째 텀인 이윤몫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텀의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윤몫의 하락을 생산성 증가로 상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는 비인간적인 노동에 반대하는 怠業이나 자생적인 罷業의 형태로, 사회적으로는 여러 社會的 權利를 國家에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임금협상 테이블을 벗어난 계급 투쟁이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격렬한 형태로 일어났으며, 이는 잉여가치율의 하락으로 나타났고 勞動生産性의 下落으로 표면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 계급투쟁은 階級妥協 및 社會的 合意에 입각하여 높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을 교환하고 국가가 자본 축적에 개입하여 조절하였던 포드주의 축적체제와 케인즈주의적 국가정책의 모순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다만 1970년대 중반에는 잉여가치율이 다시 1960년대 중반의 수준으로 回復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잉여가치율은 상승했지만 노동생산성이나 이윤율은 예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등장한 新保守主義 정권들의 反勞動政策과 디플레이션 政策들은 노동자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失業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¹⁰⁾을 상기할 때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생산성 위기 및 장기침체는 더 이상 잉여가치율의 하락 및 계급투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2. 資本構成의 上昇

자본구성의 상승은 노동자 1人當 자본스톡 상승 또는 자본스톡 價值/賃金 比率의 상승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生産技術의 高度化를 의미한다. 노동자 1人當 기계설비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하며, 資本間 競爭에서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개별 자본으로 하여금 特別剩餘價值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개별 이윤율의 상승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지만 다수의 경쟁하는 자본들이 서로 이 특별잉여가치 획득을 위해 生産技術 革新 및 生産性 向上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구성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구성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구성의 상승은 이제는 반대로 利潤率 低下 要因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스톡 증가는 그만큼 비용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윤 압박 요인이다. 둘째,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9)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후반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960년 중반부터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反戰 集會를 전개했다. 또한 흑인·여성 등 少數者의 權利를 옹호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치운동은 기존 권력을 부정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운동의 일부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심지어 체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하였다.

(10) 대표적으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과 미국의 실업률은 각각 약 3%와 약 5% 이하에 머물러 있던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항상적으로 5-10%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Maddison(1991, Appendix C)].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려면 自己 資本 뿐 아니라 他人 資本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金融費用이 증가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¹¹⁾ 셋째, 경제 전체적으로 자본구성이 상승하면 그만큼 사업을 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資本 規模 자체가 증가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금융비용 증가 뿐 아니라 資本 回轉의 長期化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요의 급감과 같은 市場 要因의 변화에 개별 자본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Moseley(1991)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의 有機的 構成⁽¹²⁾의 상승은 이윤을 저하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47-1977년 기간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연평균 변화율은 0.82%에 불과했다. 그런데 1965-1972년 자본의 유기적 구성 연평균 변화율은 1.88% 이었고, 1972-1977년 3.12%까지 상승한다. Shaikh and Tonak(1994)의 추정 결과 역시 Moseley(1991)와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 1973년부터 약 10여 년간 자본구성이 그 이전 및 그 이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정 연구들의 결과, 197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자본구성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구성의 상승은 그만큼 19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이윤을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본구성의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후 長期好況을 가능케 했던 구조가 계급투쟁에 의해 촉발된 경제위기로 崩壞되었다는 관점에서, 자본 구성의 상승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미 1960년대부터 잉여가치율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가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은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잉여가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勞動時間을 연장하거나, 賃金을 삭감하고 勞動強度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

(11) Pollin(1986)에 따르면 1965년을 전후로 미국 기업들의 負債 比率이 급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채 비율의 상승은 實現 危機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이윤율의 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다시 이 이자지불로 인해 이윤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Pollin(1986), Duménil and Lévy(2001b)).

(12) Moseley(1991)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OCC)을 C/N (=불변자본/새롭게 생산된 가치)로 정의한다. 여기서 불변자본의 가치는 고정불변자본과 유동불변자본의 가치의 합이다. 한편 새롭게 생산된 가치는 생산적 산업분야에서 생산된 총가치에서 농업,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소비자 가치(proprietor value)를 뺀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임금이나, 임대업자의 소득 등은 제외하는 것이다. 이 유기적 구성은 총생산수단 가치를 총생산적 노동시간으로 나눈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본/노동 비율과도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리는 알고 있다. 자본이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과의 대립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설비만으로는 예상했던 만큼의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자본은 既存設備을 빨리 廢棄하면서 새로운 設備을 導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의 부담스러운 직접 대립도 피하면서,⁽¹³⁾ 동시에 生産性 優位에 따른 特別剩餘價値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投資’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 하에서 실질 이자율은 낮게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은 비교적 쉽게 새로운 설비투자를 시도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의 잉여가치율 하락, 노동생산성 하락에 이어 시차를 두고서 자본구성의 상승이 나타나는 현상은 계급투쟁에 의해 촉발된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이윤몰의 하락에 대해 자본이 취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계급투쟁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자본들이 동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었다. Armstrong *et al.* (1991)과 Duménil and Lévy (2001a)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미국산업 전체의 이윤율은 1965년부터 下落趨勢를 보인다. 한편 일본산업 및 유럽산업 전체는 각각 1970년과 1968년부터 하락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자본스톡이나 노동자 일인당 자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일본이나 유럽은 1960년대 초부터 미국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Armstrong *et al.*(1991)). 미국 자본은 1960년대에 이미 낮은 축적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1960년대부터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를 증가시킨 점을 생각할 때, 巨大 超國籍企業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 자본은 海外投資를 통해 자본 축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과 유럽 자본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더욱 加速化되는 資本蓄積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점증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및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의 모순이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60년대 초반부터 ‘황금기’를 지탱하던 축적구조에 모순이 생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¹⁴⁾

(13) 이런 경우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국 자동차산업이었다. 실리적 조합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극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생산라인의 변경이나 차종변경에 대해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임금상승을 요구했다(Milkman(1997)).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략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기도 했다.

(14) 이와 관련하여 자본구성의 고도화를 잉여가치 착취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Holloway (1995)는 이를 ‘搾取費用의 增加’로 지칭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노동대중의 저항이 임금협상에 그치지 않고 生産統制 및 제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같은 反體制的 運動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으로 잉여가치를 착취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윤을 저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그는 네오 리카디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윤압박설과 정통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통합하였다고 생각한다.

2.3. 利潤率 低下

세부적인 추정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1970년대에는 全般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 논자에 따라서 추정방법이 다르고 심지어는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오는 이윤율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세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Armstorng *et al.*(1991), Duménil and Lévy (1993, 2001a), Moseley(1991), Shaikh and Tonak(1994), Weisskopf(1979)). 어떤 정의에 따르든 1960년대부터 누적되어온 모순이 1970년대 초의 이윤율 저하, 즉 경제위기로 나타났다.

여기서 세 가지의 利潤率 定義式을 적어보자.

$$(2.1) \quad r = \frac{S}{V+C} = \frac{S/V}{C/V+1}$$

$$(2.2) \quad r = \frac{\Pi}{K} = \frac{\Pi}{Y} \cdot \frac{Y}{K}$$

$$(2.3) \quad r = \frac{\Pi}{K} = \frac{\Pi}{Y} \cdot \frac{Y}{L} \cdot \frac{L}{K}$$

[S: 잉여가치, V: 가변자본, C: 불변자본; Π : 이윤, Y: 산출, K: 자본스톡, L: 노동량]

(2.1)식은 맑스의 정의이며 Moseley(1991), Shaikh and Tonak(1994)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의이다. (2.2)식은 이윤몹과 자본/산출 계수의 역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정의이며, 분배투쟁과 자본생산성이 강조된다. (2.3)식은 이윤몹, 노동생산성, 노동/자본 비율의 곱으로 정의되는 이윤율이다.

여기서는 특히 (2.3)식의 利潤率 定義에 주목하고자 한다. (2.1)식은 현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지표들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深層에서 작용하는 잉여가치율이나 자본구성과 같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대신 이 변수들은 (2.3)식에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본 비율에 반영이 된다. 노동생산성 변동의 이면에는 잉여가치 생산이 존재하며, 노동/자본 비율은 (2.1)식의 C/V 의 역수로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2)식에는 資本生産性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본이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2.3)식에 資本 投下에 대한 생산의 효율성이 더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2.2)식을 채택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윤율 정의를 통해 앞서 제기한 잉여가치 생산과 노동생산성, 자본구성의 고도화를 1970년대의 이윤율 저하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長期好況이 지속되면서 임금률의 상승, 이윤률의 하락 경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¹⁵⁾ 이를 더 이상 노동생산성의 상승으로 相殺할 수 없게 되는 것이 196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다. 이를 賃金削減이나 勞動強度 強化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더 큰 저항을 불러오기 십상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결국 나온 것이 낡은 設備 廢棄와 新規投資를 통한 자본축적이었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요의 충분한 확대 없이는 이윤율의 追加的 壓迫 要因으로 작용할 따름이다. 게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높아진 負債 比率는 기업들의 金融 負擔을 증가시켰다는 점도 이윤율의 지속적 저하 요인이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지체되는 각국의 輸出은 世界 市場 擴大의 遲滯를 반영하며, 이 상황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이윤율 하락에 기여했을 것이다.

결국 일국적인 차원에서 임금률의 상승, 노동생산성의 하락에 대해 신규투자와 같은 자본의 대응은 오히려 이윤율을 하락시키고 부채를 증가시켰으며 침체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정권들의 反勞動的 政策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해계모니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이는 剩餘價値率의 上昇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자가 양산되고 복지정책을 축소하면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음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輸出 市場의 停滯는 자본으로 하여금 단순히 상품만 파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자본이 1970년대 들어 일국적인 자본축적의 양식이 변화해야 하는 조건 속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자본 세계화의 동력이 된다.

3. 資本의 對應

우리는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불황의 원인을 계급관계의 위기를 반영하는 생산성의 위기와 자본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과잉설비로 인한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자본은 축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 즉 자본주의

(15) 물론 이는 Aglietta(1979)를 비롯한 일련의 調節理論 學派의 설명과도 연결된다. 이들에 따르면 전후 장기호황에 기여한 것이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즉 강도 높은 비숙련 단순노동에 대한 고임금과 높은 노동생산성에 기반한 축적체제라는 것이다. 이 축적체제에서는 높은 임금비용 때문에 이윤률 하락 압력이 작용하지만, 이를 높은 생산성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높은 임금-높은 노동생산성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때이다.

축적체제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축적체제의 변화는 자본이 노동의 강력한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過剩設備을 해소하고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의 世界的 集中과 競爭의 激化로 나타났다.

3.1. 勞動의 危機

1970년대 이후 경기침체로 이윤율이 하락하고 과잉설비가 늘어나면서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G7의 실업률은 1960-1973년까지 3.1%에서 1973-1979년 4.6%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에 4.8%에서 6.7%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실업률은 0.8%에서 4.9%로 크게 증가하였다(Brenner(1998)). 또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1974-1983년에 이르는 構造調整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의 경우 8%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유럽의 경우 20%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Moody(1997)). 이러한 실업의 증가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發言權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인정받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완전고용을 유지했으며 생산성과 連動한 임금 증가를 통해 실질임금의 증가를 보장받았던 황금기를 경험한 노동자계급은 경기침체가 실업과 생활수준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70년대를 통해 罷業은 높게 유지되었으며⁽¹⁶⁾ 노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본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노동자의 저항은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자본에게는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생산성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을 유지하라는 요구는 이윤률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축적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자본과 노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正面對決을 펼칠 수밖에 없었으며 점차로 자본이 힘의 優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희생을 강요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제약하는 노동의 정치적·경제적 힘을 분쇄하려고 노력하였다. 영국의 대처정부는 피켓팅을 제한하고 클로즈드 쇼프의 설립을 어렵게 하며 支援罷業과 同情罷業을 제한하고 정치분쟁을 노동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국가 부문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문 항공 관제관 조합(PATCO) 노조원 1만 1천 명을 모두 해고했으며

(16) 미국의 경우 1967-1971년 노동자들의 罷業日數는 165일을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고 1972-1976년 105일, 1977-1981년 90일을 기록하였다. 영국의 경우 1979-1981년 파업이 정점에 달해 112일을 기록했으며 이후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Armstrong et al.(1991)).

사기업 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임금 동결, 작업규칙 강화 및 기존 계약의 조기 재협상을 강요하였다.⁽¹⁷⁾

그러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만으로 황금기의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노동자 계급의 힘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과 자본의 힘관계가 역전된 더욱 중요한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非正規職의 증가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의 목적은 만성적인 이윤을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세워 기업들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引受·合併을 과감하게 전개하였으며 하청 등을 이용하여 생산을 지리적으로 재배치하고 分散化된 생산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인수·합병은 노동시장을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인수·합병은 2만 5천 여건이 성사되어 2조 달러의 자산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였다[Manning(2000)]. 이러한 인수·합병의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기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해고를 단행하였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有給休暇·健康保險·退職年金 등을 마구 삭감해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시장과 생산조직을 柔軟化하여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을 분열하고 세력을 약화시켰다. 황금기를 지탱하던 전통적인 포드주의 생산방식은 린(lean)생산방식으로 대체되었다. 하청 등을 통한 생산의 분산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였다.⁽¹⁸⁾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조의 조직력을 하락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조장하며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왔다.

축적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힘은 역전되었고 노동의 약화는 분명해졌다. 勞組交渉力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미국의 노조조직율은 1983년 전체 고용노동자 1,770만 명 가운데 20.1%를 유지했으나 1999년 1,650만 고용노동자의 13.9%로 하락하였다. 영국의 경우 노조조직율은 1970년 50%에서 1990년 41%로 하락하였고 프랑스는 같은 기간 동안 21%에서 10%로, 스페인

(17) 미국의 레이건 정부 시기 노조에 대한 공세를 자세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한 설명은 Davis (1986)를 참조하라.

(18)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인력 중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15.6%에서 1995년 18.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임시직 노동자는 1980년 초 16%에서 1993년 31%로 증가하였다.

은 50%에서 10%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Moody(1997)).

노조의 교섭력 약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1965-1973년 3.5%에서 1973-1987년 0.9%로 하락하였다. 유럽 OECD 나라들의 경우, 1973-1979년 3.3%였던 연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979-1989년 1.3%로 하락하여 미국을 제외한 OECD 나라들 전체에서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1% 이하로 떨어졌다.⁽¹⁹⁾

이상에서 본 것처럼, 자본이 생산성 위기와 노동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노동에 대한 공세를 통해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상한 나라의 하트여왕처럼 자본가들은 “더 빨리! 더 빨리!”를 외쳤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따라 잡지 못했다. 단지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은 자본가들의 다음과 같은 말 뿐이었다. “여기는, 내가 보다시피,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이보다 최소한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하지.”

그러나 황금기 고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 임금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생활 전반이 악화되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자 노동은 새로운 저항을 끊임없이 조직하였다. 비록 전반적으로는 노동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노동은 자신이 저항할 수 있는 한에서 자본의 공세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만으로는 전반적인 이윤율의 회복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윤율의 회복을 극복하려는 자본의 또 다른 대응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국적기업의 발전이다.

3.2. 超國籍企業⁽²⁰⁾의 發展

1970년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본은 世界的인 集中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적 집중은 주로 초국적기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국적기업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윤율의 회복을 위한 자본의 대응이었다. 자본구성의 고도화로 인한 과잉

(19) 이러한 실질임금 하락은 所得 不平等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우 1977-1999년 사이에 상위계층 1퍼센트의 세후 소득은 평균 115% 증가했고, 상위 20%의 소득도 43%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하위 5%의 소득은 9% 하락하는 등 하위 40%의 계층이 실질소득 하락을 경험하였다(Manning(2000)).

(20) 사실 여러 문헌에서는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이라는 용어보다 多國籍企業(multinational corporations)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다국적기업은 “둘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을 설립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라는 용어는 국적이 둘 이상이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면서 국민국가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초국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 초국적기업은 “한 나라의 利害를 벗어나려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것이 자본의 본성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장시복(2002)).

설비와 과잉생산은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또한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資本蓄積率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이동이 촉진된다. 이 경향은 원료·노동력·상품시장·자본시장을 두고 자본들 간에 국내외적인 경쟁을 격화시켰다.

과잉설비와 경쟁에 직면한 자본은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마련했다. 새로운 전략은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으로 나타났다. 海外直接投資는 자본집중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주요 나라 사이에 증가하는 해외투자는 초국적기업의 지리적인 再集積이 아니라 초국적기업이 체계적으로 작고 혁신적인 기업을 구매하여 이윤이 높은 부문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운동이었다(Hymer(1979), Andreff(1984, 1996)).

특히 공황은 더 많은 기업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따라서 재집합을 촉진했다. 자본의 집중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이윤이 높은 부문, 그리고 더욱 유망한 나라로 진출하였고, 과잉설비를 가진 경쟁자의 생산능력을 지배하여 과잉생산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1820년대 국제무역은 세계 총생산물의 약 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계속 증가해 1870년 5%, 1913년 8.7%에 이르렀다. 특히 1870-1913년 사이에 아주 새로웠던 것은 “축적된 자본의 거의 절반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즉 외국을 향한 자본의 거대한 흐름”이었다(Maddison (1995)). 이 시기에 초국적기업은 鐵道, 電氣, 電信, 電話, 라디오 등 각 나라의 社會基盤施設의 건설에 참여하고 1차 산업인 석유, 천연자원, 원료 등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海外投資는 자본수출의 형태인 해외포트폴리오투자가 중심이었으며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미미했다.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세계경제의 통합수준은 1914년에서 1945년까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은 ‘危機의 30年’ 동안 진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활동도 위축되었다. 석유산업 부문의 초국적기업이 새로운 원료공급처를 찾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했다(Winkins(1998)).

초국적기업이 다시 발전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장기호황과 세계경제의 통합을 바탕으로 초국적기업은 미국계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미국 해외직접투자스톡은 1960년 319억 달러로 선진국 해외직접투자스톡의 47.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영국은 124억 달러(18.3%), 네덜란드 70억 달러(10.3%), 프랑스 41억 달러(6.1%)로 미국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를 기록하였다(하선목(198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띠었다. 우

선 초국적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1)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60년 40억 9,800만 달러, 1965년 70억 1,790만 달러, 1970년 120억 5,900만 달러였다. 이 액수는 1975년 258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455억 8,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UNCTC(1983, 1988)].

1970년대 이후 변화에서 중요한 점은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 開發途上國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국민국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Kiely *et al.*(1998)]. 198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스톡은 5,066억 달러였는데, 그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2,867억 달러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다.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비중은 73.8%에 달했다. 또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스톡은 5,134억 달러였는데,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4,673억 달러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97.4%에 달했다[UNCTAD(1999)].(22)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역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약 10개 개발도상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Dicken(1998)]. 또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자본은 안전하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相互交叉投資를 하면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개도국에 투자하였다. 이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유럽, 일본의 三極(3-triad)에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초국적기업의 확장은 국민국가의 정책 변화와 새로운 技術革命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가 자본축적의 위기를 가져왔고 자본은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입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국민국가 안에서 자본축적을 조절하고 통제하던 케인즈주의는 약화되었다. 더욱이 국민국가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협조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하고 固定換率制가 폐지되고 變動換率制로 이행하면서 국민국가의 개입은 한층 더 약

(21) 해외직접투자의 양적인 증가는 세계 GDP의 증가나 세계수출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다. 1981-1985년 해외직접투자는 0.8% 증가했고, 1986-1990년 28.3%, 1991-1993년 5.6%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각각의 기간에 세계 GDP는 2.1%, 10.6%, 3.3%로 증가하였고 세계수출은 -0.1%, 14.3%, 3.5%로 증가하였다.

(22) 1980년 해외직접투자가 선진국에 집중된 현상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199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스톡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이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비중은 68.1%에 달한다. 또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스톡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4.0%를 차지하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90.2%에 달한다[UNCTAD(1999)].

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부들이 들어서고 남미를 중심으로 한 輸入代替 工業化가 붕괴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²³⁾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국들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선진국 정부는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수익성 있는 公企業을 私有化하였다. 또한 대외부문에서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했다.

선진국은 또한 자국자본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貿易·外換·資本移動의 自由化를 타국에 강요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國際通貨基金(IMF)을 통해 개방압력을 넣고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등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世界貿易機構(WTO)의 설립을 통해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에 자유를 주었다[김수행(1996)].

이러한 국민국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적 자본축적의 물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極小電子(micro electronics)혁명은 초국적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극소전자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발전한 전자·컴퓨터부문의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극소전자혁명은 기존의 에너지 집약적 생산기술을 대체하는 집적회로, 마이크로프로세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의 출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자본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세계적 축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극소전자혁명은 정보통신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인 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을 정보화하며, 去來費用의 감소를 촉진하였다. 극소전자혁명은 自動化 설비의 증대, 고기능·고집적 기계의 증대로 노동과정이 단축되고 세분화되면서 노동과정의 유연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의 확장은 초국적기업의 이윤율의 전반적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Andreff(1996)는 미국을 포함해 11개 나라 373개 초국적기업의 이윤율을 살펴본 뒤, 초국적기업의 평균이윤율이 1972년 이전에는 감소하였지만 1973년과 1974년 경제위기의 첫 국면 동안 증가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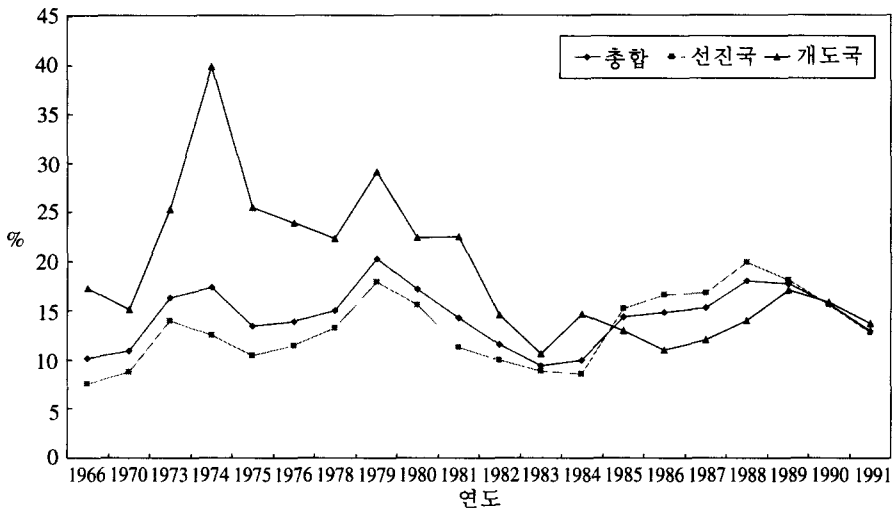
(23)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는 김수행(1995)을 참조하라.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에 관한 분석은 이성형(1999)을 참조하라.

1980년까지 경향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그는 1982-1985년 미국 초국적기업은 국내기업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이윤율이 높았고 석유 파동기에 이윤율이 절정에 달해 공황기에 이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승 국면인 1988년에도 큰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²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윤율 회복을 위해 자본이 세계적으로 집중하면서 초국적기업은 격렬한 경쟁을 겪게 되었다. 1975년 거대 초국적기업 500개의 나라별 분포는 미국계 초국적기업 241개, 유럽계 초국적기업이 170개, 일본계 초국적기업이 54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나라별 구성은 미국계 초국적기업의 弱勢와 일본계 초국적기업의 強勢로 변화하여 1995년에 가서는 미국계 초국적기업이 153개, 유럽계 초국적기업이 172개, 그리고 일본계 초국적기업이 141개로 나타났다(*Fortune*(1976, 1996)).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본계 초국적기업의 진출이었다. 이미 일본계 초국적기업의 진출은 東南亞를 중심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加工基地의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勞動集約의 산업에서 新興工業國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자 일본계 초국적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1985년 ‘플라자 합의



〈그림 1〉 超國籍企業의 地域別 利潤率

(24)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973-1985년 초국적기업의 이윤률은 석유부문에서 가장 높았으며 원유가격의 하락과 함께 제조업부문은 1986-1988년 기간에 가장 높은 이윤율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 서비스부문의 이윤율이 높았다.

(Plaza Agreement)'로 인한 엔화가치의 급격한 切上과 이로 인한 輸出單價의 急増과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地域化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기업은 해외진출을 가속화했다(차상우(1994), 윤영관(2000)).

이러한 선진국 초국적기업 간의 경쟁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과점체들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세계 500대 기업의 판매액은 1980년 2조 9,241억 달러에서 1995년 11조 3,753억 달러로 약 다섯 배 증가했다. 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2조 2,746억 달러에서 32조 1,365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고용도 1985년 2,600만 명에서 1995년 3,51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Fortune(1981, 1996)).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산업의 경우, 10개의 다국적기업이 1984년 67%, 1988년 64%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1982년 20개의 초국적기업이 세계 자동차 생산의 91%를 차지했으며 1992년 90%에 달했다. 의약재료는 7개의 초국적기업이 1989년 90%를 생산하였으며 1985년 타이어의 85%는 6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고 유리의 92%, 담배의 87%, 화장품의 79%는 각각 5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다(Andreff(1996)).

특히 초국적기업의 경쟁과 소수의 과점체로의 이행은 초국적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이윤을 회복을 시도하고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²⁵⁾ 1970년대 공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유럽에서는 1,000여 회에 달하는 국제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발생하였다. 1979년, 1980년 각각 666개와 721개의 미국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은 1980년대 들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전세계에서 인수·합병의 총 회수는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매년 42%씩 증가하였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인수·합병의 총가치는 1980년 0.3%에서 1999년 8%로 증가하였다.

국제 인수·합병은 1990년 약 150억 달러에서 1999년 약 720억 달러로 4.8배 증가하였다. 특히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1조 달러 이상의 거래)이 크게 증가하였다.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은 1995년 35건, 1996년 45건, 1997년 58건, 1998년 89건의 거래가 있었다. 1998년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에서 미국과 영국은 총가치의 거의 반을 차지하였다. 국제 인수·합병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8년 89건의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 중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은 11건을 차지하였다(Du Boff and Herman(2001)).⁽²⁶⁾

(25) 1990-1993년 국제 인수·합병은 선진국 OECD 나라들 간 해외직접투자의 평균 70%를 차지하였다.

(26) 개발도상국의 국제 M&A는 흥미롭게도 모두 공기업 사유화와 관련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는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과감하게 사유화했다. 민영화 사업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나 국가경쟁력 강화란 측면보다는 외채 원리금 상환이나 재정개혁에

이러한 인수·합병은 해당기업이 원래 활동하던 영역에서보다 다른 영역과 결합하는 경우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이에 따라 世界的 垂直統合이 증가하였다.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의 인수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을 장악하고 신규투자의 경우보다 훨씬 빠른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합병이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수많은 기업이 빚을 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였다.⁽²⁷⁾ 더욱이 경쟁의 격화로 사업수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국적기업은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즉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Chesnais(1996)].

따라서 초국적기업이 경쟁에 직면하여 과잉생산과 설비를 제거하고 이윤율을 회복할 목적으로 추진한 자본의 세계적 집중을 통해, 이윤량이 증가하고 자본의 크기가 거대해지기는 했지만, 이윤율의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의 집중에 따라 초국적기업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으며⁽²⁸⁾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금융투기를 통해 초국적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²⁹⁾ 이에 따라 금융불안정성에 취약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세계경제의 불균등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자본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과점체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또한 경쟁과 자본 집중의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불안정성에 취약하게 되었다. 이상한 음식을 먹은 엘리스처럼 자본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세계경제를 위협에 빠뜨리거나 앓을까 걱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우선순위를 두고 빠르게 추진되어 관리 부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성형(1999)].

(27) 1994-1999년 미국기업의 부채는 60% 증가하였다. 2000년 초 기업의 채무총액은 4조 4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46%에 이른 액수이다.

(28) '세계 500대 기업'의 이윤은 소득수준이 낮은 43개국(중국, 인도 제외)의 총GDP 합계인 3,040억 달러를 초과했고 500대 기업의 판매액은 세계 총GDP의 절반 가량(47%)을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중국, 인도 포함) 또는 중간소득 107개국 총생산 합계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였다(Beaud(1997)).

(29) 예를 들어 일본기업인 쇼와 셸 세큐(Showa Shell Sekiyu)는 通貨派生商品에 투자하여 13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독일기업인 메탈게젤샤프트(Metallgesellschaft)는 石油派生商品에서 13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은 金利派生商品에서 2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Manning(2002)).

4. 結 論

이 글은 제한적인 설명을 통해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불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불황은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결합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의 金兌換 撤廢宣言과 1973년 고정환율제의 포기,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에 따른 브레튼 우즈 시스템(Bretton Woods System)의 붕괴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왔으며 세계경제 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엄청난 재정적자를 양산한 베트남 전쟁이나 황금기의 종말에 방아쇠 같은 역할을 했던 석유위기를 야기한 아랍과 이스라엘의 中東戰爭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후 장기불황에 따른 자본의 대응은 노동에 대한 공격과 초국적기업의 발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중요한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金融資本의 전세계적 운동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현상이다. 하루 外換市場에서 거래되는 자본의 양이 1조 달러를 훨씬 넘어섰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은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통제나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투기성 자본인 헤지펀드는 24시간 개장하는 세계주식시장을 통해 差益을 내는 去來(arbitrage)를 하고 있으며 각국의 거시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4

팩스: (02)886-4231

E-mail: soohaeng@plaza.snu.ac.kr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博士課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5434

E-mail: sibok@hanmail.net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碩士課程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4

E-mail: dreamarch@hanmail.net

參 考 文 獻

- 김수행(1995): “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이론』, 제13호.
- _____ (1996): “자본의 세계화 경향에 관한 일고찰,”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윤영관(2000): “다국적기업의 정치경제,” 여정동·이정동 공편, 『현대국제정치경제』, 법문사.
-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 장시복(2002): “초국적기업과 국민국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학위논문.
- 정성진(1999): “세계경제위기와 맑스주의 공황론,” 『진보평론』, 창간호, 현장에서 미래로.
- 차상우(1994): “1980년대 일본 초국적기업의 대 아시아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하선목(1989): “196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Aglietta, M.A.(1979):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 New Left Books (성낙선 외 옮김(1994): 『자본주의 조절이론』, 한길사).
- Andreff, Wladimir(1984): “The International Centralization of Capital and the Reordering of World Capitalism,” *Capital & Class*, 22.
- _____ (1996): *Les Multinationales Globales*, La Découverte (우석훈 옮김(1999): 『세계화 시대의 다국적기업』, 문원출판).
- Armstrong, P., A. Glyn, and J. Harrison(1991): *Capitalism Since 1945*, Basil Blackwell (김수행 옮김(1993):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두산동아).
- Beaud, Michel(1997): *Le Basculement du Monde*, La Découverte & Syros (백영현 옮김(2000): 『세계의 격변』, 한울).
- Brenner, R.(1998): “The Economics of Global Turbulence,” *New Left Review*, 229.

Chesnais, F.(1996): *La Mondialisation Financière*, La D couverte & Syros.

Davis, M.(1986): *Prisoners of the American Dream*, Verso(김영희 · 한기욱 옮김 (1994) :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 비평사).

Dicken, Peter(1998): *Global Shift: Transformation the World Economy*, P.C.P.

Du Boff, B. Richard, and Herman Edward(2001): “Merger, Concentration,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Monthly Review*, **53**.

Duménil, G., and D. Lévy(1993): *The Economics of the Profit Rate: Competition, Crises and Historical Tendencies in Capitalism*, Edward Elgar.

_____(1999a): “The Profit Rate: Where and How Much Did It Fall? Did It Recover? (USA 1948-1997),”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25**.

_____(1999b): “Brenner on Distribution,” *Historical Materialism*, **4**.

_____(2001a): “The Profit Rate: Where and How Much Did It Fall? Did It Recover? (USA 1948-1997),” CEPREMAP Working Paper.

_____(2001b): “The Real and Financial Components of Profitability (USA 1948-1999),” <http://www.cepremap.cnrs.fr/~levy>.

_____(2001c): “Costs and Benefits of Neoliberalism — A Class Analysis,” <http://www.cepremap.cnrs.fr/~levy>.

_____(2001d): “Brenner on Competition,” *Capital & Class*, **74**.

Fine, Ben, Lapavistsas Costas, and Milonakis Dimitris(1999): “Addressing the World Economy: Two Steps Back,” *Capital & Class*, **67**.

Fortune, Selected Issues.

Glyn, A., A. Hughes, A. Lipietz, and A. Singh(1990): “The Rise and Fall of the Golden Age,” in S. Marglin, and J.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Holloway, J.(1995): “The Abyss Opens: The Rise and Fall of Keynesianism,” in W. Bonefeld, and J. Holloway(eds.), *Global Capital, National State and the Politics of Money*, St. Martin’s Press.

Hymer, S.(1979):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 Radical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ely, Ray, and Marfleet Phil(eds.)(1998): *Globalisation and the Third World*, Routledge.

Maddison, A.(1991): *Dynamic Force in Capitalist Development: A Long-Run Comparative View*,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Monitoring the World Economy 1820-1992*, OECD.
- Manning, Robert(2000): *Credit Card Nation, Basic Books* (강남규 옮김 (2002): 『신용카드 제국』, 참솔).
- Marglin, S.(1990): “Lessons of the Golden Age: An Overview,” in S. Marglin, and J.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Milkman, R.(1997): *Farewell to the Factory: Auto Workers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이종인 옮김 (1998): 『공장이여 잘 있거라』, 황금가지).
- Moody, Kim(1997): *Workers in a Lean World: Unions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Verso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옮김 (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 Moseley, F.(1985): “The Rate of Surplus Value in the Postwar US Economy: A Critique of Weisskopf’s Estim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9**.
- _____ (1991): *The Falling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Economy*, Macmillan.
- Pollin, R.(1986):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Rise of Corporate Debt Dependency: The U.S. Postwar Experienc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18**, 1-2.
- Shaikh, A.M., and E.A. Tonak(1994): *Measuring the Wealth of Nations: The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Accou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CTC(1983): *World Investment Report*, United Nations.
- _____ (1988): *World Investment Report*, United Nations.
- UNCTAD(1999): *World Investment Report*, United Nations.
- Weisskopf, T.E.(1979): “Marxian Crisis Theory and the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S Eco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
- _____ (1992):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fitability Trends in the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in F. Moseley, and E. Wolff(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ofitability and Accumulation*, Edward Elgar.
- Wilkins, Mira(1998): “Multinational Corporation: An Historical Account,” in R. Kozul-Wright, and R. Rowthorn(eds.),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Global Economy*, WIDER.